

# 승병들 숨겨진 이야기 새롭게 조명

### '이순신의 7년' 연재 시작한 소설가 정찬주

지난해 영화 '명량'은 역대 최대 관객을 모으며 인기를 모았다. 영화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혜와 덕성을 갖춘 이상적 리더 이순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소설가 정찬주(사진) 씨가 전남도청과 손 잡고 인간 이순신과 승병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해 눈길을 끈다.



정찬주 작가는 인간 이순신과 승병들의 이야기를 대하소설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 작가는 1월 2일부터 대하장편 소설 '이순신의 7년'을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14년 전 서울에서 화순 땅으로 낙향하고 난 뒤부터 임진왜란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분연히 일어섰던 호남 민중의 충절과 애환을 처처에서 마주칠 수 있었죠. 소설가로서 낙향은 행운이었고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낙연 전남도지사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의기투합해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소설에서는 승병과 의병 등 이순신과 함께한 민초들의 이야기들을 부각시켜 새로운 이순신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작가는 포부를 다진다. "호남 민중의 역할이 정당하게 대접받고 있지 못한 현실은 안타깝지만 합니다. 호남 의병장들은 물론이고 관군과 의병장들에게 목숨을 맡겼던 호남 민초들의 절절한 사연도 역사 뒤면에 묻혀진 느낌입니다. 또한 목탁 대신 칼

### 첫 회, 홍국사 삼해 스님 제안에 거북선 설계하는 이순신 그려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매주 연재 "숨겨진 민초들의 역사 밝히고자"

을 들었던 화엄사, 홍국사 승려들로 구성된 의승수군의 분투나 대부분의 호남 출신인 이순신 휘하 장수들의 피끓는 충정에 대한 이야기도 알려져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 조사를 통해서 부각 시

켜 볼 예정입니다."

작가의 의도대로 소설 첫 회에서는 홍국사에 전해지는 설화를 바탕으로 이순신이 삼해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거북선 설계도를 그리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거북선 모형을 삼해 스님이 제안했다는 설이 있어요. 부도탑 모양에서 따왔다는 것이죠. 송광사에서 출가한 삼해 스님은 홍국사와 화엄사 등 호남의 여러 절을 오가며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만 아니라 앞으로 승병들의 활약상도 실감 있게 그려 내 임진왜란의 또 다른 공헌자들을 새롭게 조명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인간 이순신, 호남 사투리를 걸죽하게 쓰는 주변 인물들을 등장시켜 역사 이면에 숨겨진 사람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고 집감있게 그려 낼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 장수 관련 문집, 왕조 실록 등의 문헌 자료는 물론 향토사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자료 조사를 해왔다는 작가는 매주 금요일 원고지 50매 분량의 소설을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화순 쌍봉사 열 작업실에서 집필에 매진하고 있는 작가는 도예가인 아내 박명숙 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한다. "사립문을 걸어 잠그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죠. 옆에서 도자기 작업하는 아내가 자료조사, 인터뷰 등을 도와주고 있어요. 제 매니저나 마찬가지로요. 이 소설이 완성되면 7권 가량의 장편 소설이 될 겁니다." 정혜숙 기자

# 질병예방 위한 건강한 밥상 만들어요

### 전국비구니회관 17일~18일 사찰음식전 개최



전국비구니회관 범종사는 건강한 밥상과 질병예방을 위한 사찰음식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사찰음식 전시는 물론 강연, 어린이 뮤지컬 등이 열린다.

전국비구니회관 범종사가 '음식은 생명'이라는 주제로 '은 국민을 위한 건강밥상-질병예방을 위한 사찰음식전'을 1월 17일~18일 경내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건강한 밥상 전시는 물론 프랑스 요리 장인 에릭트로송 교수의 강연,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법종사는 "패스트푸드와 화학조미료, 합성첨가물에서 벗어나 자연 식재료를 사용한 영양가 높고 맛 좋은 제철 식재료, 천연양념으로 차려지는 사찰음식들을 누구나 직접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건강한 밥상 모델로는 △선재 스님의 때에 맞는 사찰음식 밥상(겨울철 1일 밥상) △아토피에 좋은 세로토닌 활성화 음식 △

변비예방과 기운을 북돋워주는 음식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좋은 사찰음식 등이 전시된다.

사찰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하는 건강 밥상 강연에는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중앙승가대 김용철 교수, 내과전문의 김수경 박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보는 사찰음식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2011년 프랑스 최고의 요리 장인으로 선정된 프랑스 에콜 페랑디 대학의 에릭트로송(Eric Trochon)교수가 '미식의 나라 프랑스 요리전문가 보는 한국사찰음식'에 대해 강연해 눈길을 끈다.

12가지 무료 사찰음식 점심공양과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 완생을 향해 가는 求道の 길에 서다



지난해 연말 종영한 드라마 '미생'은 케이블 드라마로서는 드물게 시청률 8%를 넘기며 이른바 '미생' 열풍을 일으켰다.

### tvn 드라마 미생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다.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연말 종영한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임시완 분)의 내레이션 중 일부다.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며 가질 수 있는 길은 또 도대체 무엇일까? 미생은 그 길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지난해 하반기 화제의 드라마로 떠올랐던 tvn '미생'은 케이블 드라마로서는 드물게 시청률 8%를 넘기며 이른바 '미생' 열풍을 일으켰다. 유행어 작가의 웹툰 '미생'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원년 터너상이라는 종합상사를 배경으로 비정규직 장그래(임시완 분) 등 개성 넘치는 인물들을 통해 '직장인들의 고뇌'를 사실적으로 표현해 열렬한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을 딴 '장그래'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나온만큼 '장그래'는 비정규직의 상징어 이름이 되었다. 물론 이 제안은 노사 어느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 시대 '장그래'는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며 묵묵히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한 데 있다. 그는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다. 조용히 사유하고 성장한다. 이른바 멈춤과 통찰을 통해 얻어진 지혜를 통해 세상을 관조한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자신의 세계 안으로 다가간다.

장그래는 프로 바둑 기사를 꿈꾸었지만 결국 프로입단에 실패하고 군제대 후

후원자의 도움으로 원년터너상 인턴 사원으로 입사한다. 고졸 낙하산이라는 이유로 인턴 동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갖은 시련을 맞고 2년 계약직으로 회사에 남게 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오상식 과장(이상민 분)은 장그래에게 이렇게 말한다. "기회에도 자격이 있는 거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빌딩 로비 하나를 밟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는 줄 알아?" 장그래는 기죽지 않는다.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 비정규직 '장그래' 시대의 초상 직장인 비애 밀도있게 그려내 '멈춤과 통찰'로 역경 이겨내고 새로운 길의 의미 화두로 제시

그렇다.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기회도 줄 수 있는 거다. 우리 모두는 미생이므로. 장그래는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장한다. 그리고 비우고 또 비운다. 욕심도 비우고, 고집도 비우고, 분노도 비우고, 어리석음도 비운다. 20대의 어린 장그래가 이렇게 절제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랜 시간 습득한 바둑의 기술 때문이다. 그는 비록 프로 입단에는 실패했지만 바둑의 원리를 터득하며 이론도의 경지를 살 속에 적용해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

이제 장그래는 고졸 낙하산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다. 회사 내부의 비리를 밝히는 일등 공신이 되기도 하고, 요

르단 중고차 사업 재개 아이디어를 내 성공시키는 등 기존의 통념을 깨는 업무 방식으로 회사 내 화제의 인물로 등극하게 된다.

이렇게만 보면 미생은 바둑에 실패한 한 청년의 대기업 입성(?) 성공담을 다루는 듯하다. 하지만 드라마는 현실을 외면하지 못한다.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장그래의 행보는 역사나 판타지보다는 리얼리티를 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존 드라마가 남녀 주인공의 멜로를 중심으로 출생의 비밀, 복수, 시한부 등으로 극의 갈등과 긴장감을 형성해 갔다면 이 드라마는 화자인 장그래와 오과장을 중심으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밀도 있게 그려낸다. 인턴사원들의 고군분투기, 워킹맘의 육아문제, 직장 내 비리, 또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갈등 등. 이렇게 매번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면서 조연들의 역할도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며 신선하고 새롭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었다. 기존 드라마의 형식을 답습하지 않고 원작에 충실했기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드라마 '미생' 역시 주인공 장그래처럼 새로운 길을 걸어가며 드라마의 새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길이란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안장감 있게 걸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미생은 바로 새로운 길을 선택해 시대의 목소리를 담아 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데 성공했다. 주인공 장그래가 새로운 길을 선택해 자신의 길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미생에서의 '길'은 도전을 거듭하며 '완생'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내 안에 내재된 '불성'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처럼 말이다. 정혜숙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 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쳐주세요.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기마음

##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이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갠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 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들어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68 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嚴誦),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승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기발>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공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공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031-534-3373